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82 호

2023년 9월 21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9 월호 요약
2. 2023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11.16 | 그랜드 하얏트 서울
3. 2023 년도 COP 제출 관련 업데이트 소식 안내
4. [CoREi] 한국-유럽기업 지식공유 세미나 결과 공유(8/23)
5.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국회 간담회 결과 공유(8/30)
6. 2 차 ESG 멘토링 결과 공유 (8/3~8/31)
7. TGE Round IV 런칭 조찬 간담회 결과 공유(9/14)
8.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 참여 기업 모집 (~12/15)

■ 본부 소식

1. 2030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가속화 행동 촉구
2.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자금 조달을 위한 '블루 본드' 실무 지침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CJ 제일제당

■ UNGC & 회원사 뉴스

1. '달램' 운영사 헤세드릿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2. SK, ESG 우수협력사에 이자 감면...1 조원 규모
3. "ESG 에 진심"... 국민연금 책임투자 3 배 늘렸다
4. 삼성전자, 男 직원 육아휴직 1000 명 돌파...LG·SK 도 증가
5. 한화생명,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구축...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9 월호 요약



VOLUME 36 | September 2023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 목차 ■

1.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의 인권실사
2. 전문가 인사이트 | Benn F. Hogan(벤 호건) Director of GBI
3.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4.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5. ESG 최신 동향: 2023 직장 내 여성 글로벌 전망 보고서 | 직장에서의 책임있는 AI 이용

이번 Monthly Insights의 주제는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 인권실사’입니다.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최근 보고서에, 가치 사슬 내 다운스트림 실사가 부족하면 기업에 심각한 인권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모든 산업 분야는 다운스트림 인권영향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의 정의와 인권실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니다.

다운스트림 인권실사 전략과 프로세스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 부분에서 인권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가치 사슬의 모든 부분에 인권실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권정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운스트림 인권영향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약속을 합니다.
-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위험을 식별하고, 조치 계획을 알립니다.
- 제품의 연구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책임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판매 절차와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KYC), 뇌물 수수 및 부패방지 시스템에 인권 실사를 포함합니다.
- 인권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마케팅을 이행합니다.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인권위험을 해결하고, 조치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개선을 장려합니다.
- 설계, 지속적인 서비스 또는 집단 행동 등을 통해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폐기 처리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 이해관계자 및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와 소통합니다.
-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 사례



● RECKITT

Reckitt은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AirWick, Dettol, Durex, Gaviscon, Strepisils 등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Reckitt은 인권 존중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자 덴마크인권연구소 (DIHR)와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이 중 핵심요소는 Reckitt의 첫 번째 인권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태국에서의 운영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고, 콘돔과 유아용 분유이라는 두 가지 제품의 가치사슬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를 포함한 다운스트림 부분의 인권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다운스트림 인권영향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프로세스 그리고 타 기업에 귀감이 될 만한 인권실사를 보인 다양한 산업에서의 기업 사례 4 가지를 담았습니다.

전문가 인사이드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 인권실사



Benn F. Hogan(벤 호건)

| Director of GBI

(The Global Business Initiative
on Human Rights)

벤 호건(Benn F. Hogan)은 기업과 인권 분야의 국제 전문가로서 세계은행, 세계 지속가능 발전 기업위원회(WBCSD) 등을 거쳐 2020년부터 GBI(The Global Business Initiative on Human Rights)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법, 정책 개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드 코너에는 “가치사슬 내 다운스트림 인권실사”를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GBI(The Global Business Initiative on Human Rights)의 디렉터인 Benn F. Hogan(벤 호건)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기업의 영향력이 부족한 다운스트림에서의 인권영향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인권영향에 있어 다양한 산업의 실무자들을 위한 고견을 남겨주었습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ESG 평가업무의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가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회사와 자율규제 형태로 가이드스를 마련 및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3사의 준수현황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은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탈'을 통해서도 통합 제공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로 참여하는 가운데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시행... 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ESG 평가기관 가이드런스 시행... 평가기관 협의체도 발족 ▲개인정보위,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중소기업 ESG의 토대 '윤리 경영' 등의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SG 최신 동향



[GEK] 2023 직장내 여성 글로벌 전망 보고서

자세히 보기



[ESG] 직장에서의 책임 있는 AI 이용

자세히 보기

마지막으로 'ESG 최신 동향' 코너에서는 딜로이트에서 발간한 '2023 직장 내 여성 글로벌 전망 보고서' 및 모든 산업군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AI와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책임 있는 AI 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Monthly Insights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와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상현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71)

자세히 보기

2. 2023 Korea Leaders Summit 개최 안내 11.16 | 그랜드 하얏트 서울



UN GLOBAL COMPACT KOREA LEADERS SUMMIT 2023

2023년 11월 16일 09:30-17:00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1월 16일,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합니다.

『Korea Leaders Summit』은 국내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로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국내외 지속가능성 이슈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이 연사로 참여해
기업 지속가능성을 내재화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G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SDGs 달성 목표시점인 2030년까지 절반이 되는 해로,
『2023 Korea Leaders Summit』은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가능한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
SDG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길과 기여 방안을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UNGC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 안내

- UNGC 회원사 참여: 무료 (회원사당 최대 4인)
- 비회원사 기업 및 개인 참여: 기업 50만원 (기업당 최대 3인), 개인 20만원
- 사전 신청: [1차] 10월 20일(금)까지 [2차] 11월 3일(금)까지

| 프로그램(안)

오전

시간		프로그램
09:30 - 09:35	5'	개회사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09:35 - 09:40	5'	축사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영상)
09:40 - 10:00	20'	기조연설: 기업의 SDGs 달성 기여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10:00 - 10:10	1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그룹 세레모니
10:10 - 10:20	10'	CFO Coalition for the SDGs 참여사 세레모니
10:20 - 10:35	15'	평화 및 DEI를 위한 음악회 첼리스트 배범준
10:35 - 11:55	80'	특별세션: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과 기업 과제
11:55 - 12:00	5'	HeForShe 캠페인 영상 상영
12:00 - 13:15	75'	휴식 및 오찬

오후

시간		프로그램	
13:15 - 13:25	10'	특별 메시지 1: Halfway to 2030 - Refocusing on SDG	
13:25 - 14:00	35'	특별 강연 1: 포용적인 DEI 기업문화 확산 원샷한술	
14:00 - 15:10	70'	분과 세션 1 *CoREi 공동주최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전환	분과 세션 2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공급망 실사 의무화와 기업의 대응
15:10 - 15:20	10'	Coffee Break - 휴식 및 네트워킹	
15:20 - 16:30	70'	분과 세션 3 네이처 포지티브 달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전략	분과 세션 4 지속가능금융의 활성화 방안
16:30 - 16:35	5'	특별 메시지 2: UN 반부패 협약 20주년 메시지 브리짓 스트로벨쇼 UNODC 부패 및 경제범죄 국장	
16:35 - 16:50	15'	특별 강연 2: 지속가능한 문화 산업 SM엔터테인먼트	
16:50 - 16:55	5'	럭키 드로우 이벤트	
16:55 - 17:00	5'	폐회사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문의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참가 신청

서밋 참가를 원하실 경우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시스템 등으로 인해 구글 링크 연결이 안될 경우 참가신청서(수기)를 작성하시어 gckorea@globalcompact.kr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3. 2023 년도 COP 제출 관련 업데이트 소식 안내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여러분.

2023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술적인 문제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CoP 제출을 임시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플랫폼 오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10월 중순부터 CoP 제출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플랫폼 재개 전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CoP 제출을 충분히 여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금년도 CoP 제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모든 CoP 제출 대상 회원사는 지속가능성 진전사항을 추적하고, 타 기업과의 비교 및 학습을 위해 2023년도 CoP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제출된 CoP를 분석해 시각화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모든 회원사는 상호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디지털 질문지를 통한 CoP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올해에 한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을 통한 CoP 대체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에 오픈한 기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CoP 제출을 완료한 회원사의 경우, 각 회원사의 프로필에도 2023년도 CoP가 등재될 예정으로 CoP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CoP 작성 중이나 아직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던 회원사의 경우, 기존 응답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개별 메일로 송부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추후 새로운 플랫폼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출기한 및 제명 정책 관련

2023년도 CoP 제출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출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때까지 CoP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4년 1월 1일에 회원사 프로필이 '미보고(Non-communicating)' 상태로 전환되어 공개됩니다. 2024년도 CoP 보고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2023년도 CoP를 제출하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등재하면 다시 '활동(Active)' 상태로 복구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면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는 UNGC 아카데미(Academy) 자료 접근 및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며, 다시 CoP를 제출하여 이전과 같은 '활동(Active)' 상태로 복구할 시, 제한없이 UNGC 활동이 가능합니다.

[요약]

- 2023년 10월 중순 CoP 제출 재개 예정
- 2023년도 CoP 미제출 → 2024년 1월 1일부로 '미보고' 전환
- 2023년도 CoP의 지연 제출 (2024년도 CoP 보고 기간 전에 제출) → 'Active' 상태 복구
- 2024년도 CoP 보고 기간 내 모든 영리회원사는 2024년도 CoP 제출 필요 → 'Active' 상태
-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2024년도 CoP 미제출 → 2025년 1월 1일부로 제명(Delisted)

향후 조치 안내

- 기존 플랫폼 중단 전에 CoP 제출을 완료한 회원사는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존 플랫폼 중단 전에 CoP 질문지 응답을 작성 중이었으나 최종 제출하지 않은 회원사의 경우, 이전 응답내역을 공유할 예정이며 10월 중순에 디지털 플랫폼이 재오픈하게 되면 CoP 응답을 최종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CoP 보고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회원사의 경우, Excel/PDF 템플릿을 활용하여 귀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 CoP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cel/PDF 파일을 제출하지는 않으며, 최종 응답은 디지털 질문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시고 UNGC 10대 원칙에 대해 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임팩트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UNGC 본부 CoP팀(cop-support@unglobalcompact.org) 또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gckorea@globalcompact.kr, 070-4327-97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UNGC 본부에서는 8월 30-31일부터 격주로 CoP 관련 Q&A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참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 재개되는 2023년도 CoP 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 10월 중순(정확한 날짜는 추후 안내)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약 10주의 기간입니다. (2023년도 CoP 제출 시에는 2022년의 활동/데이터를 보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기존 플랫폼의 중단 전에 CoP를 작성 중이었는데, 새로운 플랫폼에 처음부터 다시 입력을 해야 하나요?

→ 기존 플랫폼을 통해 입력하신 데이터는 새로운 플랫폼을 재개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이메일을 참고하시어 새로운 플랫폼에 다시 응답을 기록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 질문지에 기록해 둔 답변은 어떻게 옮기면 되나요?

→ CoP 플랫폼이 재개되면, 엑셀 등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기록해두신 답변을 디지털 질문에 직접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 그대로 업로드 불가)

❖ 올해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는데, 2023년도 CoP 제출일정에 맞춰 보고를 해야 하나요?

→ 신규 가입사는 가입한 다음 해의 CoP 제출기간 전까지 첫 번째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가입한 경우 올해 제출의무는 없으며 2024년도 CoP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UNGC 본부에서 발송되는 CoP 관련 메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unglobalcompact.org 로그인 후 contact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메일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UNGC 본부 CoP팀(cop-support@unglobalcompact.org)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P 질문지(PDF)

CoP 질문지(Excel)

CoP 가이드북

CoP Q&A 세션 신청

※ 참고: UNGC 본부 CoP 안내 페이지 ▶ <https://unglobalcompact.org/participation/report/cop>

자세히 보기

4. [CoREi] 한국-유럽기업 지식공유 세미나 결과 공유

[CoREi] 한국-유럽기업 지식공유 세미나 결과공유

2023년 8월 23일

일시: 2023년 8월 23일 (수) 9:30 ~ 12:30

장소: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 2F 서대문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가 공동 운영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는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과 함께 한국-유럽 기업 지식 공유 세미나를 8월 2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5여 개 기업의 실무진 70여 명이 참석한 본 행사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기후정책 입장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찾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안을 유럽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1. 인사말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참여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며, 기업의 재생에너지 역량 강화와 정책 제언의 역할을 지원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생산자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아우르는 재생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걸친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재생에너지 우선순위와 전략을 논의하는 흔치 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재생에너지 사용과 기업의 기후정책 활동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교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단체 사진

2. 발표

첫 번째로 **배희은** 기후변화에 관한 아시아 투자자그룹(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 이사가 『글로벌 기후 투자 아젠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현황에 대한 관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AIGCC는 투자가 기후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는 투자자 네트워크이며, 주요 업무는 △투자자들의 넷제로 목표 인식제고를 위한 리서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프레임워크 실행을 논의하는 워킹그룹 개최, △투자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특정시장이나 특정정부와 협의 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업이 기후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넷제로 투자 프레임워크(Net Zero Investment Framework, NZIF)등 투자자 이니셔티브의 기업의 정책 참여 중요성 강조,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투자된 자금의 갭을 메우기 위한 투자 증가 예측, △재생에너지의 시장성 평가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활용 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딜린 테너(Dylan Tanner)** 인블루언스맵 대표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바라는 기대는 △1.5°C 목표와 과학기반 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력, △보다 나은 거버넌스 구축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에 대한 투명성, △기업 운영 중 문제 발생 시 개선 활동 공시, 검토 및 감사진행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 나가는 것 등 다섯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수석연구원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태한 수석은 Scope 2가 온실가스배출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을 구성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구매 방법으로는 △인증서 별도 구매, △인증서와 전기를 묶어서 유틸리티로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 △인증서와 전기를 패키지로 묶어서 발전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PPA 등 3가지의 방법을 소개하며, 이 3가지 방법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된 원동력은 기업의 목소리라며 더욱 적극적인 기업의 정책 관여 활동을 요청했습니다.



배희은 AIGCC 이사



딜린 테너(Dylan Tanner)
인블루언스맵 대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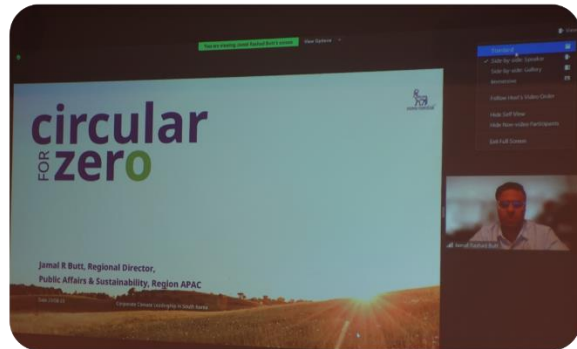
3. 기업 사례 발표

이어서 기업 사례로 **김종필 LG화학 지속가능전략 팀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LG화학은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중심의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및 탄소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공장에서는 직접 탄소 배출 감축에 집중하고, 해외 공장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중국에서 PPA 계약, △해외 주요 거점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100% 달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2022년 국내 생산 전 제품에 대해 완료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올해 말까지 해외 생산 전 제품에 대해 확대 수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기업 사례로 **자말 알 버트(Jamal R Butt) 노보 노디스크부서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최초의 제약회사로 넷제로를 위한 순환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넷제로 배출 활동에서는 △전세계 생산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현지 조달, △제품에서 7만1천톤, 생산품에서 3만9천톤의 탄소배출 감소 △매립폐기물을 없애고 순환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 △80개국에 위치해 있는 계열사의 환경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모든 직원들의 서약 요청, △수명이 다한 제품을 독일, 프랑스, 중국 등에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시연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학계, 지자체, 지방 정부 기관들이 함께 참여 중인 덴마크 최대 규모의 칼룬보르(Kalundborg) 공생 사업을 통해 매년 50만 톤 이상의 탄소를 절약하고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에너지와 물의 자급자족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이 활동을 전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례로 김종필 LG화학 지속가능전략 팀장



자말 알 버트(Jamal R Butt) 노보 노디스크부서장

3. 패널 토론

마지막으로 좌장인 **이종용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책임운영역**은 기본적으로 RE100을 달성하려면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산업과 공장 위치에 서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며, 가격 경쟁이 극심한 기업이 에너지에서도 극심한 경쟁에 직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전기 생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전세계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싼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공진석 RWE 이사**는 글로벌 요구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발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이 부족한 이유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높기 때문이고, 단가가 높은 이유는 유럽이나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유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50-60%의 효율을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효율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은 산업경쟁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효율이 40% 가까이 나오는 태백산맥 같은 지역을 집중하여 개발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고 제언했습니다. **천성문 카카오 액티브그린 플랫폼팀 부장**은 RE100 선포를 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고객이 명확하게 RE100을 요구할 때, 또 하나는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테크 등 B2C사업의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이나 신재생이 확산이 안 되는 이유는 기업이나 정부만의 생태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시민 영역으로 탄소 배출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희주 Heineken 대외협력팀 상무**는 유럽은 기업의 의사결정자들과 소비자와 시장이 환경 문제에 대해 한국에 비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기업은 친환경 기준이 조금 더 촘촘하여, 예를 들어, 패키지 자재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꾸었을 때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기여도를 퍼센트로 데이터화 한다면,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한국과 유럽의 차이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혁 Enel Green Power 팀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기를 포함한 모든 금액이 다 폭등하고 대출 이자율이 3~4%에서 7~8%로 올라, 사업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어 수요와 공급이 안정화되는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패널 토론



패널 토론

[자세히 보기](#)

5.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국회 간담회 결과공유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국회 간담회 결과공유

2023년 8월 30일

일시: 2023년 8월 30일 (수) 09:3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이원욱(외통위)·양정숙(정무위)·이용빈(산자위),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8월 30일(수)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및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와 함께 간담회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기업에게 듣는다"**를 주최하였습니다. 본 간담회는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와 이원욱 의원(외통위), 양정숙 의원(정무위), 이용빈(산자위) 의원이 함께 주최한 행사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주제로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 및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사회&인사말

본 간담회는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종영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출발한 RE100 운동이 이러한 파급효과를 지닌 것은 드문 사례"라며 RE100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의무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RE100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 지원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본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적합한 정책이 강구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본 행사의 공동주최자로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6-7년 전에 비해 최근에는 RE100, 등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으며, 기업이 관련 성과를 내고 현장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함을 말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미래 세대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임을 언급했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기업들이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하며, 이제는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양춘승 상임이사 또한 인사말을 통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이기에 RE100 인정 에너지원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이 토론에 진지하게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간담회 전체사진



이원욱 의원

2. 발표

다음 순서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태한 수석연구원**의 “글로벌 정책 및 RE100 기업 대응동향”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김 연구원은 기업의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전기(Scope 2)에서 발생하고 공급망을 필두로 한 Scope 3 배출도 전기사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Δ 전력구매계약(PPA), Δ 재생에너지 인증서, Δ 유틸리티 상품(pricing or tariffs)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순차적으로 마련되었지만, 해외에 비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우며 조달 수준 또한 낮음을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 주요 정책 동향으로 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Δ PPA 전용 요금제 시행 무기 유예, Δ CF100 시행을 위한 CFE(Carbon-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 포럼 출범 등을 언급하며,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환경이 더욱 개선되어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재국 입법조사관**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유 조사관은 “CF100 실시간 매칭의 기술적 난이도”를 주제로 CF100의 개념과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24시간 7일 매분 매초 무탄소 에너지로 기업의 사용 전력을 충당함을 의미하는 CF100은 Δ 자가 설치, Δ 직접 구매, Δ CF100 요금제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가격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CF100의 핵심 쟁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CF100을 위한 Δ 가격 설계, Δ 그리드의 재설계, Δ 계측 가능성을 설명하며 CF100은 RE100과 달리 실시간 매칭으로 이행해야 하기에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음을 말했습니다.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3. 질의응답 & 의견 개진

이어 간담회 참여기업들의 발제, 질의응답 및 비공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김예영 연구원 (02-6954-2148,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6. 2 차 ESG 멘토링 결과 공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8 월 중 총 7 개 ESG 멘토링 그룹별 2 차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멘토를 맡은 7 개 기업·기관(기술보증기금, 유한킴벌리, 포스코이앤씨, 한국가스기술공사, CJ 제일제당, DRB 동일, LG 디스플레이)이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31 개 멘티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일시: 2023 년 8 월 3 일 ~ 8 월 31 일
- 장소: 각 멘토 및 멘티 기업 사옥, UNGC 한국협회 사무실

[8 월 1 주] 기술보증기금, CJ 제일제당

8 월 3 일에는 기술보증기금과 CJ 제일제당 그룹이 각각 ESG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술보증기금**은 ESG 중 S(사회) 부분의 전략과제 및 하위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상생·협력의 혁신성장 활성화’라는 전략과제 하에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금융지원 확대, 기술창업지원 강화, 성실 실패자에 대한 포용적 재기환경 조성 등의 추진과제를 소개하였고, ‘국민체감 사회책임 이행’의 전략과제 하에 진행되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활동, 일·가정 양립 근로문화 등의 추진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Q&A 시간에는 ESG 활동 관련 기금 추진 절차, 중견/중소기업 지원 제도,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등에 관한 심층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CJ 제일제당에서는 ESG 공시 및 보고서와 관련하여 논의를 시작으로 국내외 사업장의 데이터 관리 문제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소통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향후 적용되는 의무공시에 대한 대응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기업 스스로가 그린워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데이터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자가 점검 등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과, 국가마다 상이한 법 적용에 따른 해석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Q&A 를 통해서도 다양성(DEI) 제고, ESG 평가 대응, ESG 위원회 및 임원 관심 제고 등에 대한 멘티 기업들의 고민을 나누며 해결방법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ESG 멘토링



CJ제일제당 ESG 멘토링

[8 월 2-4 주] DRB 동일, 유한킴벌리

8 월 9 일에는 **DRB 동일**이 2 차 ESG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중견/중소기업의 초기 ESG 실무 준비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특히 고객사의 주요 지속가능성 아젠다를 파악하여 기업 내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UNGC 를 비롯해 SBTi, CDP 등 각종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발전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주요 고객사의 요청 및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서 ESG 컨설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고, ESG 동향을 파악하는 경로 및 중견/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ESG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습니다.

8 월 24 일에는 **유한킴벌리**의 2 차 ESG 멘토링이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유한킴벌리와 협업하고 있는 MYSC 의 박정호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CSO)를 초청하여 MYSC 의 임팩트 투자 결정요소 및 투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유한킴벌리 YK 펀드의 구조 및 활동결과를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임팩트 측정, 투자한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체 발간한 애규온캐피탈(멘티)의 사례를 통해, 성공요인과 장단점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RB동일 ESG 멘토링



유한킴벌리 ESG 멘토링

[8 월 5 주] 포스코이앤씨, LG 디스플레이, 한국가스기술공사

8 월 29 일에 진행된 **포스코이앤씨**의 2 차 ESG 멘토링에서는 환경 및 탄소 경영 현황과 공급망 ESG 관리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경영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의 소음, 폐기물, 용수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하였고, 탄소경영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전략 및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재생에너지원 확대 등 이행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생생협력 및 ESG 관리에 관하여 협력사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녹색구매, 동반성장, 공정거래, 안전보건평가 등을 논의하였고, 특히 신용평가사인 이크레디블과 함께 공급망 ESG 평가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8 월 30 일에 진행된 **LG 디스플레이**의 멘토링에서는 유관 부서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먼저 ESG 조직 현황 및 비즈니스 연계 ESG 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ESG IR 활동, ESG 성과 연계 ESG

파이낸싱, 생산 법인의 고객별 ESG 리스크 활동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ESG 관리 체계와 관련해 핵심 영역, 핵심 지표, 중점 과제 등의 도출 과정과 이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설명하였고, ESG 보고서 구성 및 중점 내용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분쟁광물 관리와 인권영향평가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멘티 참여기업의 ESG 현황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ESG 과제 내재화 등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추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8월 31 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 차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석자들과 함께 식사 및 티타임을 가지며 네트워킹을 하였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국가경영연구원의 ESG 특강을 통해 멘토링을 시작하였습니다. 특강 시간에는 한밭대학교 기도훈 교수를 초청하여 ‘공공기관의 ESG’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ESG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과제를 나누었고 특히 해당 과제를 내부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멘티 기관들이 ESG 현황을 발표하며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였고, 멘토링 참여기관이 공통으로 추진할 그룹 ESG 공동 과제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포스코이앤씨 ESG 멘토링



LG디스플레이 ESG 멘토링



한국가스기술공사 ESG 멘토링

금번 2 차 ESG 멘토링에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급망 ESG 관리, ESG 과제 추진을 위한 내부 KPI 설정 등 공통적인 관심 현안이 제시되었으며, 멘토로부터 노하우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점차 ESG 이슈가 비즈니스의 핵심 리스크로 자리잡게 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각 멘토 및 멘티 참여사에 형성되었습니다. 다음 3 차 ESG 멘토링은 10 월 중 진행 예정이며, 멘토링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향후 멘토링에 관심있는 기업들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상현 과장 (070-4327-9771,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7. TGE Round IV 런칭 조찬 간담회 결과 공유

일시/장소: 2023년 9월 14일(목) 07:00 - 09:30 / 중구 더 플라자 오피스홀

참석 기업: △교보증권 △넥센타이어 △DGB 금융지주 △삼성전자 △애쿠온캐피탈 △한국콜마홀딩스
△HLB △LG 디스플레이 △코웨이 △포스코이앤씨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2023년 9월 14일, 기업 내 다양성과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이하 TGE) 프로그램의 네 번째 라운드 런칭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자리한 환영사에서 “한국은 올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에서 조사대상 146 개국 중 105 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6 단계 하락한 순위로 한국은 성평등 관련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국가”라고 강조하며, ROUND IV 를 맞이한 TGE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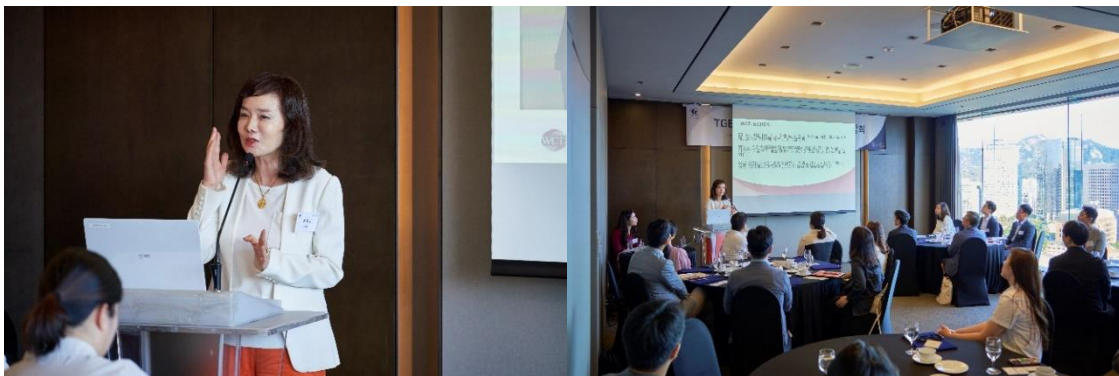


이어서,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과 TGE ROUND IV』를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UNGC 는 SDGs 의 전방위적 이행을 위해서 성평등을 주요 시작점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참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젠더 렌즈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전세계 동향을 브리핑하며, 기업 젠더 이슈와 관련한 UN 유일의 원칙인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전세계적으로 8000 여개 기업이 가입한 가운데, 한국은 아직 53 개 회원사만이

가입해 있는 만큼 성평등을 위해 기업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TGE 프로그램 첫 번째 런칭 이후, 지난해 Round III에 이르기까지 △WEPs 성 격차 분석 툴을 활용한 성과 분석 △정부, 투자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역량 강화, 미디어&옹호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히고, 기업들의 ROUND IV 참여를 환영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차장이 TGE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게 보내는 TGE 프로그램 참여 증서 전달 세레모니를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이복실 롯데카드 ESG 위원장의 『다양성과 포용성: 성공하는 기업의 선택』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복실 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20개국 여성 임원 비율 중 한국이 가장 마지막 순위에 머물러 있음을 설명하며,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해서는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규법안’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성별 다양성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주요 쟁점으로 도래한 가운데, 여성의 기업내 참여는 ESG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포용성 없는 다양성은 오히려 여성 리더십을 소수집단으로 배제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 리더의 충분한 관심을 확보하고, 기업내 제도적·환경적 조치를 강구하여 포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날 이른 오전 개최된 간담회는 이어서 진행된 조찬과 네트워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TGE 프로그램 ROUND IV는 10월 18일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약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사의 많은 지지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조연경 과장 (070-4327-9767, ykcho@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2030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가속화 행동 촉구: 절반의 시점을 맞이하여



UN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이하 UNGC)와 액센추어(Accenture)에서 새롭게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기업 이행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2030 SDG 의제 달성을 위해서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더욱 협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GC 과 액센추어가 2030년까지 절반에 온 현 시점에 공동 발간한 본 보고서는 전 세계 2,800 명이 넘는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SDGs 달성 관련 기업이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SDGs 목표 중 15%만이 정상 궤도에 올랐고, 48%는 미흡하거나 불충분하며, SDG 의 37%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역전된 현실입니다. 다수의 기업 임원들(94%)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전세계의 통합된 비전으로 간주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이 SDGs 를 실행하거나 혹은 해당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고서에 담긴 10 가지 방법에는 각 17 개 SDGs 목표에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으며, 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한 시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는 "모든 목표에 획일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기업은 사람, 지구, 그리고 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전하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시장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기업 임원 중 44%는 사업 전역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SDG 목표를 비즈니스 전략 및 운영방식과 통합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SDGs 목표 달성 경과를 올바르게 보고하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이 어떤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과 측정 기준에 대해 정부에서 안내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1) 리스크, 보상, 영향 등을 재정의한 새로운 인센티브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임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76%) 부문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관된 공시 체계 마련과 정보공개 의무화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기업은 국내외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한 시장 기회를 확장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답한(71%) 요구사항은, 국가 최저 임금을 생활 임금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에 대한 변화이지만, 추구할 가치가 있는 변화입니다. 아울러,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의무적 공개 및 조치(65%), 최소 유급 육아 휴직 의무화(58%) 등 성 평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또한 다수가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3) 환경 부문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기반을 혁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청정 에너지로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더욱 강력한 정부 유인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부문에 걸쳐 기업이 동등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받고, 이행과정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정책상 불충분한 지원 외에도, 기업 임원들은 지속가능성 지표의 불일치와 더불어 특히 데이터 기술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SDGs 의제 달성에 있어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업 임원 중 84%는 SDGs 달성 정도를 측정해보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여,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 또한, 임원 중 82%는 데이터의 제한된 접근성 및 낮은 품질로 인해 SDGs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응답했습니다.
- 아울러, 77%는 산업 전반에서 SDGs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 부족 및 부적합한 인력 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액센츄어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서비스 책임자인 스테파니 제이미슨(Stephanie Jamison)은 “전 세계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당사의 잠재력을 점차 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의 기술 및 데이터 분석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더욱 확장되고 다층화 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SDGs 목표 수행에 기업이 끼치는 영향을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임원은 더 나은 결과가 더욱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SDGs 달성을 위해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 이 보고서는 UNGC 와 액센츄어의 오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가장 최근에 발간되었습니다. 전 세계 2,800 명 이상의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금융 및 비재무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인 분석을 통해, 기업의 SDGs 영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근거기반 분석을 통해, 기업의 SDGs 목표 지원에 대한 가장 포괄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FORWARD
 **FASTER**

The graphic consists of five horizontal bars of increasing length, colored from top to bottom: blue, green, yellow, orange, and red.

[자세히 보기](#)

2.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자금 조달을 위한 '블루 본드' 실무 지침



국제금융공사(IFC)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관련 글로벌 실무자 가이드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발적 지침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블루 본드" 대출 및 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관례 및 사례를 안내합니다. 더불어, △금융 시장, 해양 산업 및 글로벌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블루 본드 발행을 위한 중요 요소, △블루 본드 투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방법, 그리고 △시장통합성을 보존하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글로벌 지침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1. 블루 이코노미 유형 및 자격 기준을 정의하고, 핵심 성과 지표를 제안하며, 현장의 최신 사례 연구를 소개합니다. 지속가능한개발목표 14 번 및 기타 글로벌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 조달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해양 어업의 쇠퇴 방지, 저탄소 양식업 확대, 해상 재생 에너지 규모 확대, 해상 운송 탈탄소화 등 지속가능한 블루 경제의 발전은 급변하는 기후, 자연 훼손과 오염이라는 지구의 3 중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수입니다. 바다는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1%를 흡수하고 지구 기후를 조절하며, 중요한 열 보존 및 탄소흡수원 역할을 합니다.
3. 지속가능한 블루 경제로의 전환은 블루 경제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감소하는 등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지침은 글로벌 지속가능한 채권 시장 기반의 기존 글로벌 시장 기준을 토대로 하며, '녹색 채권 ICMA 원칙, 지속가능한 블루 경제 금융원칙 및 블루 금융 UNEP FI 지침, 블루본드 발행 및 지속가능한 해양 원칙에 관한 실무 UNGC 지침', '해양 금융과 그린 및 블루 본드에 대한 ADB 프레임워크, 블루 금융에 관한 IFC 가이드라인 등 기존의 블루 이코노미 관련 지침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ICMA: "우리는 지속가능한 블루 경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글로벌 실무자 가이드 발간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블루 본드"라고도 알려진 블루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녹색 채권은 블루 경제에 전념하는 자본 시장의 금융 풀을 확장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ICMA의 부회장 겸 지속가능한 금융 책임자인 니콜라스 파프(Nicholas Pfaff)*

UNEP-FI: "지속가능한 블루 경제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관련 글로벌 실무자 가이드의 출시를 환영합니다. 이 가이드는 채권 발행을 SDG 목표 14(해양생태계)에 준한 채권발행에 대해 설명하며, 최초로 블루 본드 영역에 관한 명확성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블루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미래의 블루 본드 발행자와 금융 기관 모두에게 큰 진전입니다." - *UNEP FI 사무총장 Eric Usher*

UNGC: "건강한 바다는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자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80%가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기후, 자연 및 생활을 개선하는 혁신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루본드는 청정 에너지, 운송 및 식품 시스템과 같은 해양 기반 솔루션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지침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글로벌 시장에 방향성과 지속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ADB: "ADB의 건강한 해양 행동 계획은 바다와 바다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블루 경제를 위해 자금 조달 규모를 긴급히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블루 본드 인큐베이터는 정부 및 민간 부문 발행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이 지침은 투자자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이 신흥 투자 자산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적 기반과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ADB 재무 및 위험 관리 담당 부사장인 Roberta Casali*

IFC: "우리는 블루 프로젝트 적격성 기준, 블루 본드 발행 및 블루 금융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시장에 제공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는 ICMA, ADB, UNEP-FI 및 UNGC와 함께 가장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지침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블루 경제를 지원하는 최신 가이드입니다" - *IFC 산업 부사장인 Mohamed Gouled*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기업 소개

CJ 제일제당은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설탕 제조업으로부터 출발해 지난 70여년간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왔습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제품 개발과 다양한 사업영역으로의 진출, 그리고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건강하고 즐겁고 편리한 라이프스타일을 전 세계에 나누며, 지속가능한 삶과 건강한 지구를 위한 노력함과 동시에, CJ만의 OnlyOne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CJ 제일제당은 미래 생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원재료 구매,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의 핵심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연에서 소비자 식탁으로,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Nature to Nature' 선순환 체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핵심가치와 연계하고 대외 중요성, 비즈니스 영향도를 토대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전략과제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패키징, 친환경 소재 솔루션,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인권 리스크 제로화, DE&I 존중문화, 건강과 영양 증진, 지속가능한 공급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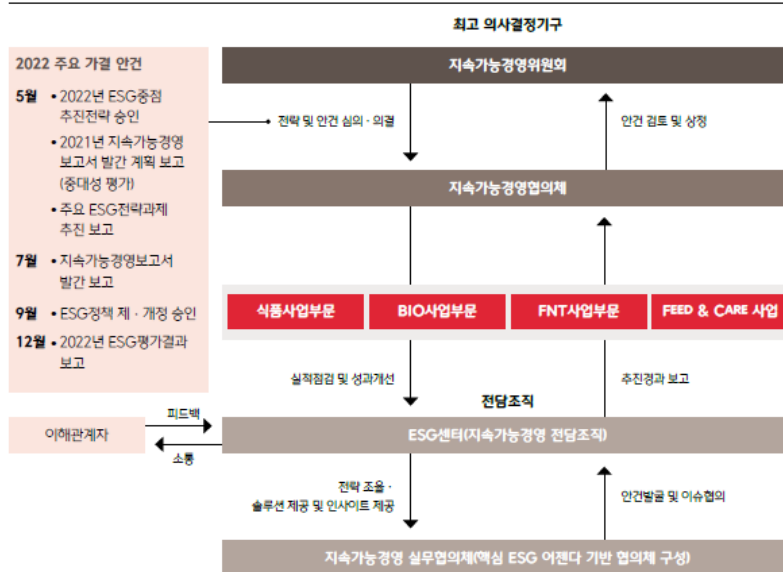


추진 방향성



CJ 제일제당은 지속가능경영 지향점 달성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 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목표 성과 관리, 성과 창출의 추진 방향성을 토대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경영 전략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이사회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전략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지속가능경영협의체'와 'ESG 센터'를 통해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CJ 제일제당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기업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MSCI ESG 평가에서 AA 등급,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8년 연속 Asia-Pacific 지수 편입, 한국 ESG 기준원 ESG 평가 통합부문 A 등급을 받았습니다.

3. 사례

3-1. 탈 탄소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제품 솔루션 혁신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CJ 제일제당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영역(사업장 운영, 제품 솔루션, 가치사슬 및 지역사회)에 걸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2030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1년 K-푸드 세계화의 전진기지인 충북 진천 블로섬캠퍼스에 목재자원을 연료로 한 스팀 가스화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사업장에 태양광 설비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사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목표	2050 CARBON NEUTRAL & ZERO WASTE 기반 비즈니스 구현		
추진 영역	사업장 TRANSFORM INTO DE-CARBON & GREEN	제품 솔루션 INNOVATE ECO-PRODUCT	가치사슬 및 지역사회 COLLABORATE & PARTNERSHIP
30년 목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25% 감축(2020년 대비)	2030년 제품·솔루션 기반 고객 온실가스 감축 기여 (2020년 사업장 배출량의 25% 이상)	핵심 공급/판매망 온실가스 배출 감축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100% 전환(미주)		2030년 식품 손실·폐기량 50% 감축 (2020년 대비)
	2030년 용수 원단위 10~20% 감축(2020년 대비)		
	2030년 매립 폐기물 제로화		

또한 식품 패키징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해 재활용, 재사용, 퇴비화 가능한 패키징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사용량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해롭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포장재 소재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6 가지 소재를 ‘네거티브 리스트 (Negative List)’로 선정했습니다. 이 소재들은 글리콜변경피이티수지(PET-G),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과불화옥테인술포산(PFAS), 발포폴리스타이렌(EPS), 폴리스타이렌(PS), 유색 유리병 재질 등으로, 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중단 시점과 구체적인 목표가 담긴 로드맵을 추후 공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포장재로 인해 환경에 잔류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비화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소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생분해 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의 브랜드 ‘PHACT’를 론칭하고, 다양한 제품들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헛반 용기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사이클링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자사물 CJ 더마켓을 통해 헛반을 구매한 고객이 헛반 용기를 세척해 무료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세척하고 이를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합니다. 2022년 헛반 용기 회수 캠페인을 통해 약 30만 개의 헛반 용기를 회수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마마(MAMA) 응원봉, 리사이클링 오브젝트, 천연 가슴기 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3-2. 더 건강한 인류,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제품의 영양학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최고 수준의 품질안전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CJ 제일제당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생활이 강조되는 트렌드에 맞춰 영양품질을 높인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Nutrition Commitment 2025’와 연계하여 나트륨, 포화지방, 당류 섭취 기여도가 높은 카테고리과 제품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위해가능한 영양성분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영양성분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 대비 칼로리를 25% 낮춘 ‘비비고 왕교자 라이트’ 3종과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인 ‘잡곡 곤약밥’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맥스봉 오리지널 제품에 기존 제품 대비 칼슘, 철분을 강화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기업으로서 식품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보호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높은 품질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사만의 글로벌 품질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 CJ 제일제당을 둘러싼 전 구성원, 사업장, 공급망,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듭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DE&I 존중문화 구축, 인권리스크 제로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CJ 제일제당은 누구나 최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성(Diversity), 공정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강화한 존중문화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2년 DE&I 정책을 수립하였고, 2023년에는 DE&I 마인드 셋 내재화 기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추진과 단계적 확산의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다양성 및 포용적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위해 인재 범위와 성장 경로를 확장한 글로벌 인재 육성 제도인 'CJ&me'를 통해 자기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자기주도적 몰입환경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 강화, 자기주도적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문직 여성한국연맹 주최 'BPW 골드어워드' 수상에 이어 WIN 어워드에서 '양성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되었고, 가족친화 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각도의 다양성 확보 노력을 통해 여성 임원비율은 25.1%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권 규범의 존중과 더불어 모든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권선언서를 수립하고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권영향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사업장의 인권실사 시범적 시행에 이어 글로벌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실사 기반의 ESG 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강화하여 인권 위험을 예방하고자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업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을 1999년 업계 최초로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갖춘 이래 가장 잘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비롯한 식품나눔, 임직원 참여 활동을 통해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의 핵심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2021년부터는 서울시가 선정한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CJ 제일제당 나눔냉장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해변을 입양하여 꾸준히 돌보는 해양수산부의 '반려 해변'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 마시안, 부산 다대포 지역의 해변을 입양하여 해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4.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속가능 개발 목표	글로벌 이니셔티브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달램' 운영사 헤세드릿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건강한 기업을 위한 B2B 웰니스 플랫폼 '달램' 운영사인 주식회사 헤세드릿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B2B 웰니스 기업 가운데 최초임.
- 주식회사 헤세드릿지는 설립 단계부터 UNGC의 핵심가치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기업 운영의 핵심 가치로 유지해오고 있음.

서울경제

2. SK, ESG 우수협력사에 이자 감면...1 조원 규모



- SK와 KB국민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협력사들에 최대 1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음.
- SK그룹이 ESG 관련 금리 우대 프로그램을 시중은행들과 잇따라 가동하는 것이어서 협력사들이 고금리 상황 등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데일리안

3."ESG 에 진심"... 국민연금 책임투자 3 배 늘렸다



- 국민연금이 환경·책임·투명경영(ESG) 같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한 금액이 1년 새 250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전체 자산군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면서 투자 패러다임 역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임.

매일경제

4. 삼성전자, 男 직원 육아휴직 1000명 돌파...LG·SK도 증가



- 삼성전자의 남성 직원 육아휴직자 수가 지난해 1000명을 돌파했으며,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남성 96.5%, 여성 98.9%로 집계됐다. 또한, 삼성전자는 육아·난임 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일찍이 도입했을 뿐 아니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제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재직 시에는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와 육아휴직 기간을 겹치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뉴시스

5. 한화생명,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구축...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



- 한화생명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임. 지난 3 월 21 일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와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한화생명은 국내 생명·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함. 장애인 고용의무는 국가, 지자체와 50 명 이상 사업장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전체 근로자가 50 명 이상이면 3.1%)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한국경제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7 곳입니다.

- 디엘케미칼
- 두원중공업
- 국도화학주식회사
- 주식회사 헤세드릿지
- 주식회사 티아이피
- 주식회사 아이이에스지
- 스프링온워드

2. CoE 제출회원

8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2개 회원사가 CoE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과학기술연구회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해 3월 디지털 CoP 플랫폼을 오픈하고 일괄 제출기간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적인 문제로 플랫폼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6월 15일부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CoP 제출을 임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점검하는 동안 영리 회원사는 CoP 질문지 템플릿(PDF, Excel)을 참고하여 계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UNGC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을 업데이트 하고 향후 단계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

자세히 보기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